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 경기장 열릴 산타줄리아아이스하키아레나



/뉴시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개회식이 열릴 산시로 올림픽 스타디움.

/뉴시스

역대 첫 분산개최... 4개 클러스터·15개 경기장

'지속 가능성' 중시하는 기조... 신축 경기장 최소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은 역대 동계 올림픽을 통틀어 처음으로 2개 도시에서 분산 개최되는 대회다. 대회 명칭에 두 도시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도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처음이다.

로 하는 특성 때문에 이전에도 빙상 종목과 설상 종목이 서로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 치러진 적이 있었지만, 대회명에 두 도시의 이름이 동시에 들어간 적은 없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그간 1개 도시 개최를 원칙으로 했으나 이번에는 이탈리아 밀라노와 코르티나담페초가 40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것을 고려해 두 도시 이름을 모두 대회 명칭에 넣도록 했다. 빙상, 설상이 완전히 분리되던 기존 대회와 달리 이번에는 빙상 종목인 컬링이 코르티나담페초에서 개최되는 것도 눈에 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은 IOC가 '올림픽 어젠다 2020'을 통해 강조하는 올림픽의 지속 가능성과 비용 효

율성을 실현하기 위해 힘을 쏟았다. 새로운 경기장 건설을 최소화해 비용을 줄이면서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1956년 코르티나담페초,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을 치르며 남은 올림픽 유산을 최대한 활용했다. 95% 이상의 경기장이 기존 시설을 개보수했거나 임시 시설을 활용한다. 개회식이 열리는 산시로 올림픽 스타디움(스타디오 주세페 메아차)은 축구장에 올림픽을 위한 무대와 관람 설비를 갖추기 위해 리모델링을 했다.

스키점프와 노르딕 복합 종목이 열리는 프레다초 스키점프 스타디움과 크로스컨트리 스키 종목이 펼쳐지는 테세로 크로스컨트리 스키 스타디움은 '발디피에메 클러스터'로 묶였다. 폐회식은 밀라노와 코르티나담페초의 중간 지점인 베로나의 베로나 올림픽 아레나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베로나에선 경기는 열리지 않고 폐회식만 진행된다. 친환경을 외치는 이번 대회는 메달도 자체 생산 폐기물에서 회수한 재활용 금속을 활용해 만들었고, 온전히 재생 에너지로 작동하는 유도 가열로에서 주조된다. 아울러 국제삼림관리협회(FSC) 인증 재료로 포장재를 만들며 플라스틱 사용은 최소화했다.

체육회는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에 각각 현장 지원단 캠프를 마련해 선수단을 돕는다. 선수들의 컨디션 유지를 위해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부터 현지에서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한 체육회는 이번 대회에서는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발텔리나에 급식지원센터를 각각 운영하기로 했다. 체육회는 코로나19로 인해 폐쇄 루프로 운영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당시에도 전진 국가대표 선수촌 영양사와 조리인력 등 14명을 파견해 선수들에 한식 도시락을 제공했다.

당시에도 설매, 알파인 스키 종목이 치러진 엔징과 설상 종목이 열린 장자커우가 베이징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체육회는 이들 지역에 주 2-3회씩 도시락을 배달했다. 이번에는 급식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운영해 도시락 수급을 한층 원활하게 할 예정이다.

/뉴시스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1 | FORENA

★ 방문예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PREMIUM6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의 품격	원스톱 도보 학세권	일상을 높인 특화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쾌적한 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와 포레나의 합작	북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타운	단지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양초, 운암중 등 안심 학세권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망형 유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창고 등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픈 커뮤니티인선 전 타석 GDR골프연습장 및 스크린 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경과 운암산, 중의곡원 등 힐링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중도금 무이자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시행 운암 단지 재건축청정사업조합 | 시공 GS건설 | (주)한화/건설 | HDC현대산업개발

062) 607-8338

개·폐회식장을 포함해 이번 대회에 사용되는 15개 시설 중 새롭게 지어진 것은 밀라노의 산타 줄리아 아이스하키 아레나와 코르티나 슬라이딩 센터 뿐이다. 2개 도시에서 분산 개최되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은 개최 장소를 크게 나누는 클러스터인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발텔리나, 발디피에메 등 4곳에 달한다. '밀라노 클러스터'에는 개회식이 열리는 산시로 올림픽 스타디움, 피겨와 쇼트트랙 경기가 벌어지는 밀라노 아이스 스케이팅 아레나, 아이스하키 종목이 진행될 밀라노 산타줄리아 아이스하키 아레나가 위치했다. 또 아이스 파크에는 스피드스케이팅 종목이 치러질 스피드스케이팅 스타디움과 아이스하키 종목이 열리는 밀라노로 아이스하키 아레나가 함께 있다. '코르티나담페초 클러스터'에는 여자 알파인 스키 종목이 열리는 토파네 알파인 스키 센터, 컬링 종목이 펼쳐질 코르티나 컬링 올림픽 스타디움, 설매 종목을 위한 코르티나 슬라이딩 센터, 바이애슬론이 개최되는 안테르셀바 바이애슬론 아레나가 속했다. '발텔리나 클러스터'에는 남자 알파인 스키와 산악 스키 종목이 치러지는 스탈비오 스키 센터, 스노보드와 프리스타일 스키 종목이 개최되는 리비노 스노 파크와 리비노 에어리얼·모굴 파크가 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설매 종목 경기가 열릴 코르티나 슬라이딩 센터. /뉴시스



스탈비오 스키 센터. /뉴시스